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71

▶ 72회 예고
탁실라 특사단장은 아쇼까왕의 하사품을 꾸날라 부왕에게 전한다. 한편, 특사 일원인 친위대 조장은 꾸날라를 벌하라는 가짜 명령서를 대신에게 전한다. 결국 꾸날라는 자신의 두 눈을 뽑히는 형을 받고 탁실라에서 추방당한다.



아쇼까, 동생 비가따쇼까 개종시키다

아쇼까왕은 탁실라로 떠나는 특사단장을 정궁 접견실로 불러들였다. 이번 특사단의 임무는 탁실라 부왕 꾸날라를 위로하는 일이었다. 아쇼까왕은 사랑하는 아들 꾸날라를 재위 동안 단 한 번뿐인 대관식에 참석시키지 못한 것을 몹시 아쉬워했고, 후회했기 때문이었다.

"준비는 다 했소?"

"대왕님께서 탁실라 부왕님께 하사하실 물품은 제가 직접 점검했습니다. 특사 일행을 호위할 기마군사는 외성에 대기 중입니다. 친위대 조장이 선발한 군사들입니다."

"꾸날라 부왕에게 대관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을 내가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전하시오. 부왕이 나를 위해 연주해주었던 공후소리가 가끔 그립다고도 전해주시오."

아쇼까왕이 가장 신경을 쓴 하사품은 공후였다. 궁중악단 악장(樂長)에게 지시하여 옛 앙가국 짬빠성의 명장을 찾아가서 신비로운 소리를 내는 공후를 구해오게 했던 것이다. 짬빠성의 공후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명기이므로 꾸날라에게는 보배 같은 선물이 될 터였다.

"대왕님이시여, 부왕님께서 크게 감동하실 것입니다."

"친위대 조장은 어디에 있소?"

"선발한 군사들을 외성에서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이므로 정신무장과 체력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잘 다녀오기 바라오."

며칠 후.

드디어 특사 일행이 탁실라로 떠나기 전날이었다. 친위대 조장은 띠쉬아락시따 왕비별궁을 경비하는 책임자이기도 했으므로 띠쉬아락시따를 찾아가 보고했다.

"왕비님, 특사 일행은 내일 새벽에 탁실라로 떠납니다."

"일전에 조장님께 주었던 대왕님의 명령서가 든 밀봉한 봉투는 잘 간직하고 계시지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특사 단장께서도 대왕님의 명령서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아마도 단장님이 부왕님께 전하는 명령서는 공적인 것이고 제가 전하는 대왕님의 명령서는 사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적인 명령서이기 때문에 왕비님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대왕님의 명령서를 보지 못했으니 공적인지 사적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조장님이 가지고 있는 대왕님의 명령서는 특사 일행이 탁실라를 떠날 때 전해 주세요. 그것만은 잊지 마셔야 해요."

"왕비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띠쉬아락시따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그러면서 친위대 조장에게 약속을 하나 했다.

"탁실라에서 돌아오시면 대왕님께 말씀드려 꼭 승진하도록 힘쓸게요."

"왕비님, 고맙습니다."

띠쉬아락시따는 탁실라를 다녀온 친위대 조장이 친위대장으로 특진한 전례를 알고 있었다. 수시마가 탁실라 부왕으로 있을 때였는데, 현재의 친위대장이 친위대 조장으로 특사 일행을 따라갔다가 돌아와서 친위대장이 되었던 것이다.

친위대 조장은 가슴에 손을 대고 띠쉬아락시따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제가 탁실라에 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왕비님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도 조장님을 믿습니다."

그때 아쇼까왕은 다르마 대비별궁에 와 있었다. 아쇼까왕은 오랜 만에 문안인사를 왔고, 다르마 대비 역시 아쇼까에게 상의할 일이 있었던 차였다. 아쇼까왕은 이제 단순한 다르마 대비의 아들이 아니라 마우리아왕국의 대왕으로서 위엄이 있었다.

"어머니, 그간 별일 없으셨습니까? 대관식 때도 직접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멀리서만 뵀습니다."

"대왕께서 승가에 보시를 하면서 전국에 사원을 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목갈리뿟다띳사 사문님께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사문님은 참으로 자비로운 장로이시지요."

"어머니,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하십시오."

"요즘 고민이 하나 있기는 하지요."

"무엇입니까?"

다르마 대비는 망설이지 않았다. 바로 털어놓은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방증이었다.

"비가따쇼까가 브라흐마교 구루에게 빠져 있어요. 날마다 강가강으로 나가 구루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걱정이지요."

"저도 브라흐마교 지도자들이 천박하게 공양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한 적이 있습니다만 동생이 어머니께 걱정을 끼쳐드린다고 하니 제가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대왕께서 제발 바로 잡아주세요. 구루들이 비가따쇼까를 강가강으로 불러내 감언이설로 붙잡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비가따쇼까가 내게 '강물에 몸을 날마다 적시고 있으니 저는 죽더라도 하늘나라에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 브라흐마교 신자들은 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목갈리뿟다띳사 사문님께서는 아쇼까라마 법회에서 선인선과 악인악과라고 설했어요. 선한 행동을 하면 좋은 열매를 맺고 악한 행동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지요."

다르마 대비는 비가따쇼까가 구루들에게 세뇌당해 "사문들 가운데는 해탈한 자가 없다." "사문들은 고행하지 않고 편안함을 즐긴다."고 불교 사문들을 비웃는다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비가따쇼까를 정궁으로 불러들여 타일러보겠습니다."

아쇼까왕은 정궁으로 돌아와 친위대장을 불렀다. 그러나 그때 친위대장은 외성 밖에서 간부급 지휘관들을 집합시킨 뒤 사열을 받고 있었다. 마우리아국은 이미 보병 60만 명, 기병 10만 명, 코끼리부대 9천 명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복전쟁을 치를 때면 여러 도시에 배치한 군사가 모두 빠딸리뿌뜨라 성으로 모이지만 평시에는 간부급들만 불러 전력유지와 지휘 상태를 검열하곤 했다. 간부급들의 열병식은 아쇼까왕 앞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왕에게 특별한 용무가 있을 때는 친위대장이 대신 나가기도 했다.

비가따쇼까도 역시 아쇼까왕의 부름에 바로 오지 못했다. 강가강으로 나가 사제들과 함께 시바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은 집무실에 들어온 라다굽따에게 비가따쇼까에 대해서 의견을 구했다.

"수상께 묻겠소. 비가따쇼까가 구루들에게 빠져 있는 것 같소. 나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구루들에게 현혹되어 놀아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소. 대책을 세워야겠소."

"누구든 맹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더구나 비가따쇼까 왕자님은 부왕으로 나가서 지방을 통치할 나이입니다."

"그렇소. 동생의 나이가 열일곱 살이니 지방을 통치할 때가 되었소. 나는 그 나이 때 탁실라로 가서 반란을 제압한 일이 있소."

"대왕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비가따쇼까 왕자님은 통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소?"



"구루들을 사귀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방관할 수는 없소."

"브라흐마교만 구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에도 사문이 있지 않습니까?"

"아, 좋은 생각이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비가따쇼까가 구루들과 멀리하겠소? 아니면 개종을 하겠소?"

"소신이 왕자님을 어찌한다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니 대왕님께서 방편을 내셔야 합니다."

"좋소."

아쇼까왕이 생각해 낸 방편은 속임수였다. 비가따쇼까가 나타나면 아쇼까왕이 목욕을 하러 가고, 라다굽따는 비가따쇼까에게 왕좌에 앉게 한 뒤 왕관을 쓰게 하는 것이었다. 왕위 찬탈자로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서였다. 두말할 것도 없이 왕위 찬탈자는 극형에 처해지는 벌을 받고, 그런 상황에서는 죽음의 공포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강가강의 제사나 목욕의식도 무상하게 느낄 터였다. 뒤늦게 입실한 친위대장이 아쇼까왕과 라다굽따 수상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를 듣고 금세 이해했다.

그때, 비가따쇼까가 정궁 집무실 밖에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아쇼까왕은 즉시 각본대로 왕의 전용욕실로 들어갔다. 그러자 라다굽따와 친위대장이 집무실에 들어온 비가따쇼까에게 권유했다.

"왕자님이시여, 왕좌에 앉아 왕관을 써보십시오. 아주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형님의 왕관을 한 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비가따쇼까가 왕관을 쓴 순간, 라다굽따와 친위대장은 집무실을 나가 버렸고 아쇼까왕은 욕실에서 나왔다. 아쇼까왕이 일부러 소리쳤다.

"이놈! 네가 왕위를 노리고 있었다니!"

"형님, 그럴 리가 있습니까? 신하들이 시켜서 써보았을 뿐입니다."

"왕좌에 앉아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나를 속이려드느냐!"

라다굽따와 친위대장이 들어와 말리는 척했다.

"대왕님이시여, 왕자님께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친위대장은 즉시 저놈을 끌어내어 사형에 처하시오."

라다굽따가 거짓으로 만류했다.

"저희가 왕관을 써보라고 권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왕자님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십시오."

"알았소. 수상이 그랬다고 하지만 왕관을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다만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원했던 소원인지도 모르니 7일 동안 왕처럼 살게 한 뒤 처형하시오."

"대왕님이시여, 죽을죄를 지은 저를 배려해주시니..."

비가따쇼까는 말을 잇지 못하고 크게 소리 내어 통곡했다. 즉시 비가따쇼까에게는 아쇼까왕의 명령대로 7일 간의 자유와 오욕락(五欲樂)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비가따쇼까는 처형당할 날이 다가오자, 오욕락도 죽음 앞에서는 무상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순간, 구루들과 달리 오욕락을 철저하게 버리고 사는 불교 사문들이 부러웠다. 자신도 출가해 불교 사문이 되고 싶었다. 마침내 비가따쇼까는 아쇼까왕을 만나고자 라다굽따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라다굽따는 바로 아쇼까왕에게 비가따쇼까를 데리고 갔다. 비가따쇼까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출가하여 사문이 되겠습니다."

아쇼까왕은 자신의 의도대로 비가따쇼까가 7일 만에 개종할 의사를 보이므로 미소를 지으며 바로 허락했다.

"비가따쇼까에게 왕명으로 출가를 허락하노라. 다만, 반드시 아라한이 된 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와 나를 기쁘게 하기 바란다."

그날 밤 비가따쇼까는 목갈리뿟다띳사를 찾아가 머리를 깎았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비가따쇼까가 출가하게 된 동기를 듣고는 그도 니그로다와 마찬가지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음을 보았다. 다음날 비가따쇼까는 이른 새벽에 한 사문의 안내를 받아 목갈리뿟다띳사가 수행하던 강가강 동굴로 갔다.〈계속〉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 총무원장 동진 합장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